

전주매일신문사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공·민·생·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5월 28일 월요일 (음 4월 14일) 제205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렸다.

“비핵화 여정 멈출수 없다”

2차 남북정상회담... 문 대통령, 결과 발표

“판문점 선언 이행 재확인 고위급 회담 내달 1일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남북 두 정상은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전날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렇게 밝힌 뒤 “또한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필요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격식 없이 만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고 약속한 바 있다”며 “김 위원장은 그제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의 역사적인 판문점회담 못지않게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이루어진 이번 회담에 매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만큼 양측이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의제에 대해 실무협상을 통해 충분한 사전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도, 지방선거 공직기강 특별감찰

내달 12일까지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무관용 원칙 적용

전북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편승해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 5월 24일부터 선거일 전 6월 12일까지 권역별로 5개반 28명을 투입해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14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찰 활동에 들어갔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직감찰은 공무원의 선거관련행위, 도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거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 등 음성적 비리 및 공무원들의 무단이석과 근무태만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찰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관위와 경찰청에 이첩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하여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특정정당 정책 후보 지지 또는 비방행위, 행사개회 후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

전북도는 이러한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행위 근절 일환으로 올해 2월 1일부터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익명제보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5월 24일 부터 11개 시·군

이 부단체장 권한대행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14개 시·군 감사부서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북도는 선거에 편승한 공무원의 직 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시·군별 자체감찰반에서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고 단속할 것을 당부했다.

도 박용준 감사관은 “이번 선거에 상당히 많은 후보자의 각축이 예상되는 만큼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공무원들이 사소한 경우라도 절대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다잡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김송일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25일 빈틈없는 도정운영을 위한 ‘도정현안 대응회의’를 개최하고, 전북도가 권한대행체제로 들어섰음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는 송하진 도지사가 5월 24일 지방선거에 입후보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김송일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자가 됨에 따른

것으로 권한대행은 선거일까지 지속된다.

권한대행은 법정대리이므로 별도의 임명절차가 요구되지 않지만 대민관계 행정지휘권 확보 등의 측면에서 기자간담회, 직원조회 등을 통해 공표하곤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한대행기간 중 실질적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참석자간 토론이 이어졌다.

기획조정실에서는 ▲2019년 국가예산 확보 대응과 ▲2018년 전라북도 추경예산 편성 추진을, 자치행정국에서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을 보고했다.

김진성 기자

6·13 지방선거 전북 단체장 후보자 등록 명단 - 3면 참조

6·13지방선거 출마자 9362명...경쟁률 2.3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26일 오는 6·13 지방선거에 최종 9362명의 출마자가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평균 경쟁률은 2.3대 1로, 역대 최저였던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경쟁률(2.3대 1)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4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접수받은 후 26일 최종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도지사 선거 71명, 구·시·군의 장선거 757명, 시·도의원선거 1889명, 구·시·군의회의원선거 5335명, 광역의원(비례) 선거 300명, 기초의원(비례) 선거 897

명, 교육감선거 61명, 교육의원선거 6명, 국회의원 선거 46명이 접수 및 등록을 마쳤다.

오는 6·13 지방선거 평균 경쟁률은 2.3대 1, 17개 광역 시·도지사 선거 경쟁률은 4.2대 1, 226개 기초단체장 선거 경쟁률은 3.3대 1로 나타났다.

한편,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